

# 보길도 세연정(洗然庭)의 공간구조 형식에 내재한 전통색채 분석

한희정 ·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설계 · 조경학과

## Analysis of the Korea Traditional Colors within the Spatial Arrangement and Form of the Traditional Garden of Seyeonjeong

Han, Hee-Jeong · Cho, Se-Hwan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in building credibility of the methodology of the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olor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ose appearances by analyzing the spatial construction and configuration and the traditional colors that appear in spatial elements about the scenery component that appear in Seyeonjeong. We conducted a literature research about the traditional colors,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Seyeonjeong, and etc. For the conten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took the scenery and space elements in the poems, such as Eobusasisa and O-u-ga, and the contents of poems related to ojeongsae (five Korean traditional colors) based on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deology. Particularly, after dividing the spatial elements appearing in Seyeonjeong into visual, synesthetic, symbolic/cognitive spatial element, we further distinguished the visual space into positions and directions of the of the spaces and the scenery of the season; the synesthetic space into seasons, time and five senses; and the symbolic/cognitive space into chiljeong (or the seven passions) and sadan (or the four clues). Then we carried out the study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garden creation and the meaning of the spaces, through the analysis of ojeongsae system for each spatial element.

Firstly, spatial structure and format that appear in Seyeonjeong can be divided into two directional axes of southeast and northwest according to the flat form of the Seyeonjeong's rectangular palace, with Seyeonjeong as the center. Secondly, in spatial component element, the frequencies of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olors of Seyeonjeong are 33.2% for white, 20.8% for blue, 20.8% for black, 18.7% for red and 6.3% for yellow. Third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colors the most frequent appearance of 'white' left a room for interpretation like the creation of Seyeonjeong was to enjoy secular living without lingering political feelings so that the high mountains remain clear and clean. Also, the predominant frequency of appearance of blue, similar frequency of appearance of black and red, and the least frequent appearance of yellow is in agreement with or can be at least interpreted related to Yun Seon-do's intention for creating Seyeonjeong not for political rank or power but as a place to enjoy nature, through which he can build on his knowledge, and to lead rest of his life as a noble being through plays, like dancing and writing poems. Fourthly, these interpretations of th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olors of Seyeonjeong shows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consistency of the methodology of th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olor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s in the context that the color white appears most frequently in Soswewon as well and that the background life of the Soswewon's creator Yangsanbo can be interpreted in a similarly way. Above all, this study is significant from the fact that we proposed a theory about the method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olors in a traditional landscape space. Moreover, there is a great significance of discovering that traditional colors appear in traditional spaces and this can be used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interpret things like, intention for creation of (buildings/architectures)

*Key words: Yun Seon-do, a Hermitage Garden,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Obangsae*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Cho, Se-Hwan,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South Korea, Phone: +82-10-3804-3425, E-mail: chosh3@hanyang.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연정의 공간구조 및 형식과 공감각적, 상징적·인지적 요소에 내재하는 전통색채를 분석함으로써 첫째, 세연정 작정에 내재한 전통 색채를 찾아내고 동시에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세연정 작정의 또 다른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기존에 제시된 별서정원의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함을 부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통 색채 및 세연정의 작정 배경과 이론, 전통색채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전통색채 분석 방법을 세연정 별서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통색채 분석 방법으로는 세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요소를 크게 시각적, 공감각적, 상징적·인지적 공간 요소로 구분하여 시각적 공간으로 공간 및 경물의 위치와 방위, 공감각적 공간으로 계절과 시간 및 오관, 상징적·인지적 공간으로 칠정과 사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간요소에 대한 오정색 체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연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및 형식은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하여 세연정의 사각형 누각의 평면 형태에 따라 동남, 서북의 두 개의 방위 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둘째, 세연정에 나타나는 전통색채는 ‘백색’, ‘청색’, ‘흑색’, ‘적색’, ‘황색’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색채 분석에서 청렴과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작정자인 윤선도가 맑고 깨끗하게 정치적 미련 없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자 작정하였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색의 출현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혜를 상징하는 ‘흑색’, 신성하고 숭고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적색’이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높고 고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황색’이 제일 낮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은 윤선도가 세연정을 통해 벼슬 등 지위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그를 통해 지혜를 쌓고, 춤과 시 짓기 등 놀이를 통해 윤선도 스스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생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정되었다는 것과 일치되거나 적어도 연관되어 해석될 여지를 보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선행된 소재원의 전통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과 비교·고찰해 보았을 때 소재원에 처음으로 적용된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전통색채, 윤선도, 별서정원, 음양오행설, 오정색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산 윤선도(1587~1671)에 의해 작정된 보길도 세연정(洗然庭)은 정원에서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로 작정한 별서정원으로서 소재원 등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 별서정원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전통조경에서 전통색채의 발현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비하다. 다만, Han and Cho(2014)의 연구에서 소재원을 대상으로 전통 색채의 출현과 그 의미의 해석을 다룬 것이 전통 색채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전통 색채는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방위와 계절, 위치 등에 따라 적, 청, 황, 백, 흑 등 5가지 색으로 구분된다(Han and Cho, 2014).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색상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소재원의 연구에서는 공간의 구분, 공감각적 요소, 상징·인지적 요소 등 소재원 작정의 공간 형식, 시문 등을 통해 이러한 5가지 전통 색채의 발현을 분석하고 작정자의 생애 배경과 관련하여 색의 의미와 작정 의도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Han and Cho(2014)의 연구는 소재원이라는 하나의 별서정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별서정원에 나타나는 전통 색채 출현 분석의 방법론이나 의미 해석에서 객관적 신뢰

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한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의 일반화를 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Han and Cho(2014)의 연구에서와 같은 공간구조 및 형식의 구성 방법에 따른 시각적 요소와 별서정원 관련 시조 등에서 나타나는 공감각적, 상징적·인지적 요소 분석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첫째, 고산 윤선도의 세연정과 같은 별서정원에서도 내재된 전통색채를 출현해 낼 수 있는지? 둘째, 또 공간구조 및 형식 구분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셋째, 전통색채의 출현과 그 의미 해석은 작정의도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별서정원에서 내재된 전통색채 출현과 그 의미 해석의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첫째, 세연정 별서정원에 대한 선행연구로 Jung(1973)은 조선시대 별서조경유적의 일례에서 세연정 정원은 자연 지세를 그대로 기능화시켜 동적인 유락 공간과 정적인 상념의 공간을 분리하여 대립적으로 인접시켜 정자는 내려다보는 기능만을 위해 세워졌다고 하였다(의미적, 공간 기능적 연구). Jung(1987)은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에 관한 연구에서 부용동원림의 성립과정을 정리하면서 공간구성·지(池)·단(壇)·제(堤) 등 조경시설물의 특징, 배경사상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Choi and Hong(1994), (공간구성분석 : 방위설정과 색채 구현에 직접 관련 됨)는 보길도 부용동 세연

정 정원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길도 부용동 별서 정원 가운데에서 세연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고산 윤선도의 조영관이 세연정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Sang(2002)은 고산 윤선도 문학의 자연관과 시간관 연구에서 고산 윤선도의 문학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문학성 또는 예술성의 문제를 철학적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의문에 대한 답을 고산 윤선도의 자연관, 시간관에 관련하여 풀어냄으로써 문학과 철학의 접근 가능성과 본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im(2008)(자연 즐기기)은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를 중심으로 한 선비 정신 장신구 디자인 연구에서 선비 정신이 담고 있는 새로운 장신구 디자인을 위해 한국 선비 사상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자 과거 선비들만이 누리던 시조문학인 오우가를 통하여 오우가 속에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인 물, 바위, 달, 대나무, 소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형상화 시키고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선비 정신을 담고 있는 장신구 제작을 제시하였다. Kim(2004)(자연 즐기기)은 고산 윤선도의 산중신곡 연구에서 산중신곡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그 작품들을 자연의 진상, 전원의 구가, 윤리적 삶, 풍류의 멋 등으로 나누어 그 실상을 밝히고 국문학 사장에서 산중신곡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Kwon(2007)는 고산 시가에서 나타나는 자연관, 어부사시사와 한시를 중심으로 고산이 사대부로서 한시 창작에 몰두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어부사시사에서 드러나는 자연관을 보길도에서 창작한 한시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길도 은둔 시기에 드러나는 그의 자연관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전통색채와 관련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연정과 관련하여 고산 윤선도의 생애, 자연관, 사상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각종 시문의 해석 등에 대해 연구되고 있고, 공간구조 및 형식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음으로서 세연정의 전통색채 출현 분석과 의미 해석을 위한 단서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 본 연구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세연정의 공간배치 패턴에 관해서는 Choi and Hong(199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도상학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의도적인 동심원을 작도하여 도면을 분석하고 몇 개의 원주 상에 놓여 있는 의미 있는 인공구조물들의 중심이나 단들이 접하고 있어 그러한 법칙성을 토대로 공간구성의 형식이 결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연정의 공간 배치 패턴은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도상학적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 도상학적으로 나타난 형식을 전통사상과 관련한 의미와 연관 지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서는 윤선도의 생애를 4기로 구분

(Kim, 2004)<sup>1)</sup>하고 있으나, 윤선도가 세연정을 조성한 1616년의 1차 유배 및 출사 기간부터 1671년 재출사 및 유배기간까지 55년간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서는 세연정 내원으로 한정하였다. 내원에 국한하여 연구하는 것은 앞서 시간적 범위와 연계하여 세연정 조영기의 모습을 그린 어부사시사와 산중신곡 중 오우가의 시에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내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동양에서 색의 시작이며, 근원을 집대성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서 나타나는 오방색과 시문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 및 경관 요소와의 관련성을 전통 색채 출현과 빈도, 조영 의미와의 상관성 해석 맥락에 국한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첫째, 윤선도의 생애, 세연정의 작정, 시문, 전통색채 등에 대한 기초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공간의 구조 및 형식 분석, 경물별 오정색 분석, 세연정의 요소별 오정색 분석 등은 음양오행에 의한 방위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와 중심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중심축과 보조 축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세연정 공간구성 요소별 색채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색채의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는 시각적 요소, 공감각적 요소, 상징적·인식적 요소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 전통 색채 출현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통 색채 분석의 구체적 대상은 시각적 요소로는 공간의 위치와 방위를, 공감각적 요소로는 계절, 시간, 오관을, 상징적·인식적 요소로는 칠정, 사단 등으로 하였다. 특히 시각적 요소 대상으로는 세연정의 주요 경관 요소인 세연정, 동대·서대, 지당·방도, 계담, 토성, 판석보 등 6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색채 분석을 위해 요소별 오행과 상징체계에 따라 전통 색채를 분석하고 출현 빈도를 종합하여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 고찰

### 1. 고산 윤선도의 생애

윤선도(1587~1671)의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고, 전남 해안이 본관이며, 유학자 집안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출생한 윤선도는 17세(1603년)때 진사 초시, 26세(1612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병진소를 계기로 31세(1617년)에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32세(1618년)에는 부산시 기장으로 이배되었으나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 42세(1628년)에 별시초시(別試初試)에 장원 급제하여,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인조의 신임을 얻어 43세(1629년)에 공조좌랑이 되고, 46세(1632년)에 호조정랑,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등을 역임하였다. 66세(1652년)에 성균관사예, 동년에 예조참의에 특배되었으며, 72세(1658년)에 공조참의가 되었다.

윤선도의 생애 기간은 조선조 정치·사회적 변란이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조 최대의 전란이었던 임진왜란(1592~1598)과 정유재란(1597~1598)이 유년시절 그의 채 성숙하지 못한 인생관 및 사회의식을 크게 뒤흔들여 놓았다면, 중·장년기에 겪은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1637) 그리고 일련의 개인적 역경은 그에게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조선조 최대의 전란들을 그의 생애 기간에 고스란히 다 겪은 데다 사회와 정쟁으로 점철된 조선 중·후기 그의 삶은 파란만장 하였다(Sung, 2010).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49세(1635년)에 벼슬에서 파직당한 후로 해남으로 돌아가서 출사를 단념하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윤선도가 벼슬을 버리고 해남에 귀의하고 1년이 지난 50세 되던 해인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산은 향족, 가동(家僮) 수백 명을 이끌고 강화도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함락된 후였다. 고산은 하는 수 없이 강화에서 귀환은 했지만,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경관이 빼어난 보길도를 발견하였는데, 연꽃같은 지세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부용동(芙蓉洞)(정재훈, 1996)이라 명명하고 격자봉 아래 낙서재를 짓고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이처럼 고산이 보길도에 정착하는 시기는 51세 되는 1637년 2월이었다. 그러나 고산을 미워하는 무리가 강화도에까지 와서도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고산은 투옥되었고, 52세 되는 해인 1638년에 경북 영덕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1년 만에 사면되어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과 해남 현산면의 수정동, 금쇄동, 문소동 등에 정자를 세우고 왕래소요(往來逍遙)하면서 산중신곡 등 작품 창작을 하였는데, 이때가 고산이 53세가 되는 해로서 세연정을 작정한 시기가 된다. 고산의 은거 생활은 53세 되던 해인 1639년부터 영덕 유배 생활이 풀린 65세인 1651년까지의 13년간은 부용동에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40수를 짓는 등 많은 작품 활동과 별서정원을 조영한 시기가 된다.

그가 66세 되는 해인 1652년에 효종에 의해 성균관사예에 임명되고 이어서 동년 8월에 예조참의에 특배되었으나 정적들의 공격 때문에 고산은 관직을 삭탈 당하고, 그 후 세모에 해남으로 돌아와 금쇄동에 머물다가 그 이듬해인 67세 되는 1653년에 부용동에 들어가 70세가 될 때까지 3년간 세상일을 잊고 살았다. 그 이후 71세 되던 1657년 봄에 내국의 소명을 받아 또다시 상경하였고, 72세에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74세인 1660년 6월에 함경도 삼수로 세 번째 유배를 갔다. 5년 후 그는 다시 전라남도 광양으로 이배 되었다가 81세 되는 1667년 7월에

왕의 특명으로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해 8월 해남으로 돌아왔으며, 9월에 다시 보길도 부용동으로 들어갔다. 고산은 결국 마지막 생애인 81세부터 85세까지 5년간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다가 85세인 1671년에 일생을 마쳤다(Kim, 2004).

## 2. 세연정의 작정 배경

세연정의 작정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실도피와 자연 귀의 사상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깃든 배경에는 윤선도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혼란한 사회와 정쟁을 거치며 그의 정치 이상이 상쳐받은 데서 비롯되어 현실 도피적 자연귀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길도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윤선도는 무민(無悶)당에 거처하면서 첫닭이 울면 일어나서 경옥주 한 잔을 마시며 신선처럼 살고자 했다. 아침 식사 뒤에는 일기가 청화(淸和)하면 사륜거(四輪車)에 풍악을 대동하고 반드시 세연정으로 향하되, 학관(高山的 서자)의 어머니는 오찬을 갖추어 소거(小車)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정자에 당도하면 자제들은 시립(侍立)하고 기희(妓姬)들이 모시는 가운데 못 중앙에 작은 배를 띄웠다. 그리고 남자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혀 배를 일렁이며 돌게 하고, 공이 지은 어부수조(漁父水調) 등의 가사로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당위에서는 관현악을 연주하게 했으며, 여러 명에게 동·서대에서 춤을 추게 하고 혹은 긴 소매 차림으로 옥소암(玉簾岩)에서 춤을 추게도 했다. 이렇게 너울너울 춤추는 것은 음절에 맞았거니와 그 몸놀림을 못 속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또 한 칠암에서 낚시를 드리우기도 했다(Jung, 1996). 이러한 기록에서 볼 때, 윤선도는 세연정 작정의 배경으로 자연요소로서의 연못과 인공요소로의 정자와 사람의 인입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노래하며 가족과 이웃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장소로 작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선도는 세연정을 통해 가사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등 학습과 연구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자연즐거움의 범주를 넘어 창작을 위한 매체로 세연정을 작정하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 3. 세연정의 공간 구성 형식

Han and Cho(2014)의 연구에서 별서정원에 나타나는 전통색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서 공간을 전, 후, 좌, 우, 중심 등으로 구분하는 등 별서정원의 공간 구성의 원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세연정의 공간 구성 형식 원리를 해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 상 매우 중요하다. 세연정의 공간 구성 형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Choi and Hong(1994)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의 연구에서는 세연정의 공간 구성 형식을 원형 패턴의 도형으로 정

의하고 해석하였다. 즉, 세연정(洗然庭)의 도면상에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5개의 동심원을 작도하였는데, 동심원의 비례체계는 세연정의 평면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작도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간 구성의 평면 도형적 형식이 작정 의도 또는 형식이 주는 의미와의 전통공간에서의 방위와의 관련성 해석에 한계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세연정은 1992년 문화재 연구소에서 복원한 것으로서 사각형의 지붕 선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작도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sup>3)</sup> 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Han and Cho(2014)의 소쇄원 연구에서는 소쇄원의 공간구조와 형식을 분석함에 있어 부지의 중앙에 계류가 남북으로 흐르고 그 계류를 중심으로 양안에 좌우로 언덕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남향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 설정의 타당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남북의 계류 축을 중심으로 동서축으로는 부지의 중심부 지점의 양안에 제월당과 광풍각, 대봉정이 지형에 따라 타원형의 휘어진 선형으로 정렬되어 배치되고 있음으로써 남북 계류축과 직교되는 동서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서, 남북의 두 축은 소쇄원 공간 배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방위에 의해 공간이 구분되는 결과는 한국의 전통 공간문화에서 결코 새로운 시각이 아니며, 이러한 공간 형식 구분을 통해 음양과 좌우를 구분하고 여기에 따라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연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서 Choi and Hong(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동서, 남북의 기본 방향 축에 의해 공간 구성의 형식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연정은 4각형의 지붕 형태를 지니고 있어 그 방향성이 뚜렷하다. 즉 동서남북의 사방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 평면 구조에 따르면 세연정은 동남과 서북 축이 설정될 수 있고<sup>5)</sup>(Figure 1), 이 축을 중심으로 세연정의 좌측에 동대와 서대, 우측에 세연정 연못이 배치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이 축을 중심으로 동쪽에 해당하는 우측에 동대와 서대의 인공구조물이 위치하고 서측을 상징하는 좌측에는 자연물인 연못이 위치한다. 사람의 활동을 담고 있는 인공구조물인 동대와 서대가 자연을 상징하는 연못과 대칭을 이루어 좌우에 배치되고 상호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 설정된다. 한편 세연정 공간에 나타나는 동대와 서대는 또 다른 좌우의 방향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이 기호에 따르면 세연정을 중심으로 동대와 서대를 가르는 분명한 가상 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른바 동과 서의 방향이 지형과 물의 존재 등과 같은 환경적 여건에 부합하여 서남과 동북 축으로 변형되어 설정될 수 있다. 세연정을 중심으로 이 서남과 동북 축의 좌우에 동대와 서대가 구분되어 위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Figure

1). 그렇다면 결국 세연정의 평면 공간 구조는 세연정을 중심으로 동남과 서북을 연결하는 축과 서남과 동북을 연결하는 축에 의해 전체 공간이 동, 서, 남, 북 및 중심으로 오방이 설정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Figure 1). 여기서 이 논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떻게 5방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남-동북 축의 경우, 세연정을 중심으로 동대와 서대가 있는 부분이 하(下), 그 반대편의 지당을 상(上)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동대와 서대가 있는 방향을 상(上), 지당 방향을 하(下)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동남-서북 축의 경우, 계담이 있는 방향이 상(上), 지당이 있는 방향이 하(下)로 방향을 정할 수 있으나, 내용에 있어 계담과 지당이 모두 물(水)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 하의 방향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하나의 축의 설정에 따라 전·후가 결정될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 좌와 우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세연정의 5방을 분석해 보면, 세연정의 주진입구에서부터 본다면 동대와 서대-세연정-지당을 중심축으로 볼 수 있고, 그 축에 대칭되는 동남-서북 축인 계류-세연정-지당 축을 보조 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연정은 중(中), 지당은 전(前), 동대와 서대는 후(後), 계류는 좌(左), 지당은 우(右)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세연정별서는 세연정을 중심으로 전(前), 좌(左), 우(右)가 각각 물(水)로 이루어진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後)만이 인공의 형국을 띠는 형식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분석의 틀

#### 1. 공간 위치 및 방향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의 세연정의 공간구조 분석은 이론 고찰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지의 향과 세연정(洗然亭)의 위치와 관련하여 동서남북의 사방을 가리키는 축을 설정하고 그 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결정함으로써 전후좌우와 중심 등 오방을 결정하는 기본 틀로 삼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 구분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경물인 세연정, 동대·서대, 지당·방도, 계담, 토성, 판석보 등에 대하여 위치(상, 하, 좌, 우, 중)와 방위(동, 서, 남, 북, 중앙)를 설정하고, 여기에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하여 전통 오방색채를 분석한다.

#### 2. 공감각적 요소 분석 기준

공감각적 요소 분석으로는 고산 윤선도가 64~65세에 창작된 어부사시사 40수는 세연정 지당의 조영이 마무리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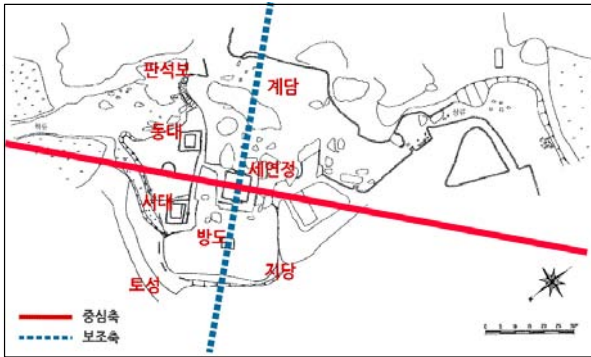


Figure 1. Set axis for analysis structure of Seyeonjung space

지당에 작은 배를 띄우고 작시한 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총 40수를 남겨 놓았다. 여기에 근거하여 어부사시사의 제영 내용과 시간적 경물을 통하여 대상지 6개 지역에 계절과 시간, 오관을 분석한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계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시간에서는 아침, 한낮, 오후, 저녁, 밤중으로, 오관에서는 눈(目), 혀(舌), 몸(身) 코(鼻), 귀(耳)로 구분(Han and Cho, 2014)하여 음양오행에 의한 공간각적 전통오방색채를 분석하였다.

### 3. 상징적·인식적 요소 분석 기준

상징적·인식적 요소 분석으로 고산 윤선도는 산중신곡 중 오우가는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외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이 모두 인격화되어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묘사되어, 작가의 사상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Kim, 1990). 따라서 인간은 간교스러우며 욕심이 많고, 믿음성이 적어 시류에 편승함이 심하므로 벗으로 맞을 수 없어, 인간이 갖기 어려운 속성과 특질들을 가진 자연물 水·石·松·竹·月을 벗으로 삼아 변함없는 영원한 속성과 특질들을 세연정 조영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정원을 즐겼다. 이처럼 시문을 통하여 대상 공간별 의미와 상징요소를 추출하고 칠정(七情)과 사단(四端)을 분석하였는데, 칠정에서는 기쁨(喜), 성냄(怒), 근심(憂),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憎), 욕심(欲)으로, 사단에서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구분(Han and Cho, 2014)하여 음양오행에 의한 상징적·인식적 전통오방색채를 분석 하였다.

## IV. 세연정에 내제된 전통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

### 1. 세연정의 공간구조 형식과 시각적 요소 분석

세연정 공간구조의 형식에 있어 공간의 위치 첫째, 세연정의

경우, 서남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 축을 중심축으로 했을 때, 세연정의 위치는 중, 방위는 중앙이다. 둘째, 동대·서대의 위치는 하, 방위는 북이며, 셋째, 지당·방도의 위치는 우, 방위는 서쪽이다. 넷째, 계담의 위치는 좌, 방위는 동쪽이며, 다섯째, 토성의 위치는 우, 방위는 서쪽이 된다. 마지막으로 판석보 위치는 하, 방위는 동쪽이 된다. 이러한 공간구조 및 형식 기준에 따르면 세연정은 위치는 중, 색채는 황색, 방위는 중앙, 색채는 황색으로 나타난다. 동대와 서대는 위치는 하, 색채는 흑색, 방위는 북이고 색채는 흑색으로 나타난다. 계담의 위치는 좌, 색채는 청색, 방위는 동이고 색채는 청색으로 나타난다. 토성의 위치는 우, 색채는 백색, 방위는 서이고 색채는 백색으로 나타난다. 판석보의 위치는 하, 색채는 청색, 방위는 동이고 색채는 청색으로 나타난다(Table 1).

Table 1. Analysis location-traverse of visual space

| 구 분   | 시각적 공간 및 오정색 |    |        |    |
|-------|--------------|----|--------|----|
|       | 위치           | 색채 | 방위     | 색채 |
| 세 연 정 | 중(中)         | 황색 | 중앙(中央) | 황색 |
| 동대서대  | 하(下)         | 흑색 | 북(北)   | 흑색 |
| 지당방도  | 우(右)         | 백색 | 서(西)   | 백색 |
| 계 담   | 좌(左)         | 청색 | 동(東)   | 청색 |
| 토 성   | 우(右)         | 백색 | 서(西)   | 백색 |
| 판 석 보 | 하(下)         | 청색 | 동(東)   | 청색 |

### 2. 세연정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요소 분석

원림의 경물은 시간에 따라, 또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새로운 경관이 연출된다. 경관은 고정된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춘·하·추·동, 아침·낮·밤·새벽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비와 눈, 안개 등의 분위기적 요소를 갖는 경관은 시적 정취를 만들어 낸다(Kim, 2008).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총 40수를 남겨 놓았는데, 대상지 6개소의 공간별 제영내용과 시간적 경물을 통하여 계절, 시간, 오관을 분석하면 Table 2와 같다.

즉, 세연정은 어부사시사 동사(冬詞) 4와 8이 해당하며, 계절로는 겨울, 시간은 새벽, 오관으로 눈, 귀이다. 동대·서대는 하사(夏詞) 6이 해당하며, 계절로 여름, 시간은 저녁, 오관으로 눈, 귀이다. 지당·방도는 추사(秋詞) 5, 6이 해당하며, 계절로는 가을, 시간은 저녁, 오관으로 눈, 혀이다. 계담은 춘사(春詞) 9, 10이 해당하며, 계절로는 봄, 시간은 밤중, 오관은 눈, 귀이다. 토성은 하사(夏詞) 7, 10이 해당하며, 계절은 여름, 시간은 저녁, 오관은 눈, 귀이다. 판석보는 하사(夏詞) 4, 5가 해당하며, 계절은 여름, 시간은 한낮, 오관은 눈, 몸이다.

### 3. 세연정에 나타나는 상징적·인식적 요소 분석

상징적 경관은 작정자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감상자

에 의해서 차후에 의미가 변화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적 근거로 감상자들이 남기는 시문이나 그림들을 통하여 대상 공간별 의미와 상징요소(Kim, 2008)를 추출하기도 하는데, 고산 운선도는 인간은 간교스러우며 욕심이 많고, 믿음성이 적어 시류에 편승함이 심하므로 벗으로 맞을 수 없고, 다만 인간이 갖기 어려운 속성과 특질들을 가진 자연물 속에서 水·石·松·竹·月을 벗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 변함없는 영원한 속성과 특질들을 고산 운선도는 세연정 정원의 조영에 있어 고스란히 반영하고자 했으며, 또한 정원을 즐겼다. 그의 산중신곡 중 오우가의 시문을 통해서 대상 공간별 의미와 상징요소를 추출하고 칠정(七情)과 사단(四端)에 대해 분석한다. 세연정은 암(巖)의 불변(不變)처럼 언제나 변치 않는 불변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물(水)의 부단(不斷)함처럼 맑고 깨끗한 심성인 자아의 성찰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칠정은 욕망(慾), 사단은 의(義)에 해당한다. 동대·서대는 달(月)의 불신(不信)과 송(松)의 불굴(不屈)처럼 광명이 있고, 작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모두 알지만 침묵을 지키는 군자의 미덕을 상징화한 것으로 칠정은 욕망, 사단은 의(義)에 해당한다. 지방·방도에서 세상의 이치는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지지만, 눈서리가 내려도 송의 불굴과 암의 불변처럼 변절하지 않는 곧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칠정은 욕망, 사단은 의(義)에 해당한다. 계담은 암의 불변과 물의 부단함으로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군자는 바위처럼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변치 않는 불변성을 표현한 것으로 칠정은 기쁨, 사단은 예(禮)에 해당한다. 토성은 죽(竹)의 불욕(不辱)처럼 속에 잡된 것 없이 사시사철 곧고 푸른 지조를 지키는 정직하고 불변하는 절개와 곧은 의지, 무욕의

Table 2. Analysis synesthesia space of Seyeonjung

| 구분   | 어부사시사 수  | 시간적 경물                                   | 계절 | 시간 | 오관 |
|------|----------|--|----|----|----|
| 세연정  | 동사(冬詞)4  | · 간밤→갠 눈→경치→얇, 잔잔한 바다→뒤, 백옥 같은 산→선경→극락정도 | 겨울 | 새벽 | 눈귀 |
|      | 동사(冬詞)8  | · 소나무→온 세상을 가리는→물결 소리→맑은 속세의 더러운 소음      |    |    |    |
| 동대서대 | 하사(夏詞)6  | · 해가긴 여름→홍의 절정→저무는 시간                    | 여름 | 저녁 | 눈귀 |
|      | 추사(秋詞)5  | · 물고기→마른 갈대→표주박 술잔                       |    |    |    |
| 지당방도 | 추사(秋詞)6  | · 돛 방향→저녁 빛→붉게 물든 숲                      | 가을 | 저녁 | 눈혀 |
|      | 춘사(春詞)9  | · 낚시줄→배의 창문→달→소쩍새 소리                     |    |    |    |
| 계담   | 춘사(春詞)10 | · 봄 밤→낚시대 지팡이→사립문                        | 봄  | 밤중 | 눈귀 |
|      | 하사(夏詞)7  | · 석양빛→바위 위로 굽은 길→푸른 숲 속→피꼬리 소리           |    |    |    |
| 토성   | 하사(夏詞)10 | · 바라보는 좁은 집→흰 구름→부들부채→돌길                 | 여름 | 저녁 | 눈귀 |
|      | 하사(夏詞)4  | · 흐린 물결→씻은 발→오자서의 노도→고깃배속→충혼의 넋 낚시       |    |    |    |
| 판석보  | 하사(夏詞)5  | · 푸른 버들→이끼 낀 여울→선착장                      | 여름 | 한낮 | 눈몸 |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칠정으로 욕망, 사단은 의(義)에 해당한다. 판석보는 구름은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은 그칠 적이 많지만, 암의 불변과 물의 부단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밤 낮 흐르는 깨끗한 물과 같은 순결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칠정은 기쁨, 사단은 예(禮)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Table 3). 세연정의 공간분석을 시각적 공간, 공감각적 공간, 상징적·인식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시각적 공간은 위치와 방위, 공감각적 공간으로는 계절과 시간, 오관, 상징적·인식적 공간은 사단과 칠정으로 6개 구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공간 별 오행과 상징체계의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3. Analysis symbolic perspective space of Seyeonjung

| 구분   | 오우가 자연물      | 의미 및 상징요소  | 칠정    | 사단   |
|------|--------------|--|-------|------|
| 세연정  | 水/不斷<br>巖/不變 | 언제나 변치 않는 불변성과 변화무상한 자연물과 혼탁한 사회현상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물처럼 맑고 깨끗한 심성을 나타냄. 곧은 의지와 자아의 성찰          | 욕망(慾) | 의(義) |
| 동대서대 | 月/不信<br>松/不屈 | 광명이 있고, 믿음직한 달과 같이 작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모두 알지만 침묵을 지키는 군자의 미덕을 표현, 바른 생각과 정의 사회 구현 | 욕망(慾) | 의(義) |
| 지당방도 | 松/不屈<br>巖/不變 | 세상의 이치는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지지만, 눈서리가 내려도 뿌리가 곧은 소나무처럼 변절되지 않는 곧은 의미로 불굴의 의지와 내재된 심성    | 욕망(慾) | 의(義) |
| 계담   | 巖/不變<br>水/不斷 |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군자는 바위처럼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변화하지 않는 불변성을 표현하며, 곧은 절개와 수신의 통로                           | 기쁨(喜) | 예(禮) |
| 토성   | 竹/不辱         | 속에 잡된 것이 없는 대나무처럼 사시사철 곧고 푸른 지조를 지키는 정직하고 불변하는 절개를 상징, 곧은 의지와 무욕의 마음                         | 욕망(慾) | 의(義) |
| 판석보  | 水/不斷<br>巖/不變 | 구름은 검기를 자주하고, 바람은 그칠 적이 많지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밤 낮 흐르는 깨끗한 물과 같은 순결한 마음을 표현, 책려와 자아성찰             | 기쁨(喜) | 예(禮) |

\* source: Kim(2008)에서 정리.

Table 4. Analysis five elements system of each different space

| 구분   | 시각적 공간 |    | 공감각적 공간 |    |      | 상징적·인식적 공간 |      |
|------|--------|----|---------|----|------|------------|------|
|      | 위치     | 방위 | 계절      | 시간 | 오관   | 칠정         | 사단   |
| 세연정  | 중      | 중앙 | 겨울      | 밤중 | 目, 耳 | 욕망(慾)      | 의(義) |
| 동대서대 | 하      | 북  | 여름      | 저녁 | 目, 耳 | 욕망(慾)      | 의(義) |
| 지당방도 | 우      | 서  | 가을      | 저녁 | 目, 舌 | 욕망(慾)      | 의(義) |
| 계담   | 좌      | 동  | 봄       | 밤중 | 目, 耳 | 기쁨(喜)      | 예(禮) |
| 토성   | 우      | 서  | 여름      | 저녁 | 目, 耳 | 욕망(慾)      | 의(義) |
| 판석보  | 하      | 동  | 여름      | 한낮 | 目, 身 | 기쁨(喜)      | 예(禮) |

#### 4. 세연정에 내재하는 전통색채 분석 : 오방색 분석

##### 1) 시각적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오정색 분석

시각적 공간에서 색채분석을 위하여 위치와 방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동에서 남서를 중심축으로 토성·지당·방도·세연정·계담 등 4개의 구조물을 서북에서 동남을 연결하는 부축으로 상징했을 때, 세연정의 위치는 중심에 있으므로 중으로 황색, 방위는 중앙에 있으므로 황색에 해당한다. 동대·서대는 하에 있으므로 흑색, 방위는 북쪽에 해당되므로 흑색에 해당한다. 지당·방도는 위치는 우에 해당되어 백색, 방위는 서쪽에 해당되므로 백색에 해당한다. 계담의 위치는 좌로 청색, 방위는 동쪽에 해당되므로 청색에 해당한다. 토성의 위치는 우로 백색, 방위는 서쪽에 해당되므로 백색에 해당한다. 판석보의 위치는 하로 흑색, 방위는 동쪽에 해당되므로 청색에 해당한다(Table 4, 5).

##### 2) 공감각적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오정색 분석

공감각적 공간에서 색채분석을 위하여 어부사시사의 시문(詩文)을 통하여 계절, 시간, 오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연정은 계절로 겨울이라 흑색이 되고, 시간이 밤중으로 흑색이 되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귀는 흑색에 해당한다. 동대·서대는 계절은 여름이라 적색이 되고, 시간이 저녁으로 백색이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귀는 흑색에 해당한다. 지당·방도는 계절은 가을이라 백색이 되고, 시간이 저녁으로 백색이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혀는 적색에 해당한다. 계담은 계절로 봄이라 청색이고, 시간이 밤중으로 흑색이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귀는 흑색에 해당한다. 토성은 계절로 여름이라 적색이고, 시간이 저녁으로 백색이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귀는 흑색에 해당한다. 판석보는 계절로 여름이라 적색이고, 시간은 한낮으로 적색이며, 오관은 눈으로 청색, 몸은 황색에 해당한다(Table 4, 5).

##### 3) 상징적·인식적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오정색 분석

상징적 경관은 작정자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감상자에 의해서 의미가 변화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적 근거로 감상자들이 남기는 시문을 통하여 대상 공간별 의미와 상징요소를 추출하게 되는데, 칠정과 사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연정과 동대·서대, 지당·방도는 칠정이 욕망으로 백색이 되고, 사단은 의로 백색에 해당한다. 계담은 기쁨으로 적색이 되고, 사단은 예로 적색에 해당한다. 토성은 칠정이 욕망으로 백색이 되고, 사단은 의로 백색에 해당한다. 판석보는 기쁨으로 적색이 되고, 사단은 예로 적색에 해당한다(Table 4, 5).

#### 5. 세연정에 나타나는 전통 색채의 의미 해석

앞 절에서 시각적 공간, 공감각적 공간, 상징적·인식적 공간에 대한 오정색을 분석한 결과, 전통 색채는 총 48개 항목에

Table 5. Analysis each pace of Ojeongsaeak

| 구분   | 시각적 공간 |    | 공감각적 공간 |    |      | 상징적·인식적 공간 |    |
|------|--------|----|---------|----|------|------------|----|
|      | 위치     | 방위 | 계절      | 시간 | 오관   | 칠정         | 사단 |
| 세연정  | 황      | 황  | 흑       | 흑  | 청, 흑 | 백          | 백  |
| 동대서대 | 흑      | 흑  | 적       | 백  | 청, 흑 | 백          | 백  |
| 지당방도 | 백      | 백  | 백       | 백  | 청, 적 | 백          | 백  |
| 계담   | 청      | 청  | 청       | 흑  | 청, 흑 | 적          | 적  |
| 토성   | 백      | 백  | 적       | 백  | 청, 흑 | 백          | 백  |
| 판석보  | 흑      | 청  | 적       | 적  | 청, 황 | 적          | 적  |

Table 6. Number of appearance and ratio of colors in three space

| 구분        |    | 오정색          |             |            |              |              | 계            |
|-----------|----|--------------|-------------|------------|--------------|--------------|--------------|
|           |    | 청색           | 적색          | 황색         | 백색           | 흑색           |              |
| 시각적 공간    | 위치 | 1            | -           | 1          | 2            | 2            | 6            |
|           | 방위 | 2            | -           | 1          | 2            | 1            | 6            |
|           | 소계 | 3회<br>6.2%   | 0회<br>0.0%  | 2회<br>4.2% | 4회<br>8.4%   | 3회<br>6.2%   | 12회<br>25.0% |
| 공감각적 공간   | 계절 | 1            | 3           | -          | 1            | 1            | 6            |
|           | 시간 | -            | 1           | -          | 3            | 2            | 6            |
|           | 오관 | 6            | 1           | 1          | -            | 4            | 12           |
| 상징·인식적 공간 | 소계 | 7회<br>14.6%  | 5회<br>10.4% | 1회<br>2.1% | 4회<br>8.3%   | 7회<br>14.6%  | 24회<br>50.0% |
|           | 칠정 | -            | 2           | -          | 4            | -            | 6            |
| 합계        | 사단 | -            | 2           | -          | 4            | -            | 6            |
|           | 소계 | 0회<br>0.0%   | 4회<br>8.3%  | 0회<br>0.0% | 8회<br>16.7%  | 0회<br>0.0%   | 12회<br>25.0% |
| 합계        |    | 10회<br>20.8% | 9회<br>18.7% | 3회<br>6.3% | 16회<br>33.4% | 10회<br>20.8% | 48회<br>100%  |

서 나타났는바, 백색 33.4%, 청색 20.8회, 흑색 20.8%, 적색 18.7%, 황색 6.3%로 백색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백색과 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청, 흑, 적색은 각각 출현 빈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없이 유사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백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로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색이고, 가장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황색은 천자나 부처의 색으로 진리와 무한한 빛을 상징하는 색으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이 두 가지 색에서 백색이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고산 윤선도가 세연정을 조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윤선도는 85세까지 사는 동안 오랜 귀양살이와 은둔생활에서도 불의와 권세 앞에 타협하지 않고, 헛된 출세에 대한 미련도 없었으며, 청렴한 유학자로서 청정과 변화를 겸비한 안식처로서 자신을 지키고 심성을 수양하는 산실로 삼았던 인물이다. 그러기에 여러 번 벼슬길에 올랐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기회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해남으로 내려오는 등 모두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의적 자의로 관직을 내려놓고 하향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연정에서 황색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윤선도가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치와 같은 고



귀한 신분에 대한 선망이 크지 않다는 그의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듯 세연정에서 백색과 황색의 출현이 양극에 이른다는 것은 어쩌면 음과 양의 양극을 지탱하는 색채로서 벼슬길과 하향을 반복한 그의 생애와 삶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연정 작정에서 특히, 백색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정작 그가 으뜸으로 바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게 정치적 미련 없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또한 남기고 있다.

한편, 청색, 흑색, 적색이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청색이 하늘과 무성한 식물, 물 등의 청정한 자연 생명을, 흑색은 지혜를, 그리고 적색은 귀한 신분 또는 신성하고 숭고한 생명력의 의미를 지니는 색채임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을 즐기며, 아이들을 위한 강학 등을 통해 지혜를 쌓게 하고, 춤과 시 짓기 등 놀이를 통해 운선도 스스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생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정 되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해석에서 볼 때, 운선도는 세연정의 조영을 통해 은둔과 은일, 전원의 구가, 자연 즐기기, 음풍 활동 등의 별서 기능 중 선비가 갖추어야 할 청렴과 청정한 생명의 상징인 백색과 청색과 지혜를 상징하는 흑색의 색채가 많이 출현됨으로써 작정 의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세연정에 나타나는 6개 경관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한 시각적 공간구성 및 배치와 상징적·인식적 공간구성 요소에서 출현하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오정색을 분석함으로써 세연정에서 나타나는 전통 색채 출현과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앞서 한희정과 조세환이 소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는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연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및 형식은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하여 세연정의 사각형 누각의 평면 형태에 따라 동남, 서북의 두 개의 방위 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연정은 별서의 중심이 되고 있었고 세연정 앞의 지당은 전(前), 동대와 서대는 후(後), 남쪽의 계류와 북쪽의 지당은 각각 좌(左)와 우(右)등으로 전통색채를 나타내는 오방(五方)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구조 및 형식의 구분은 소재원의 경우에서와 같이 별서의 방위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재원에서의 공간구성 및 형식을 통한 전통색채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방 분석법은 소재원의 경우는 지형, 세연정의 경우는 정자를 기준으로 오방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서 전통색채 분석을 위한 공간구조와 형식의 분석을 위한 기준은 지형, 물, 건축물 등 장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세연정에 나타나는 전통색채는 공간 구성 요소에서 백색 33.4%, 청색 20.8%, 흑색 20.8%, 적색 18.7%, 황색 6.3%로 나타났고, 공감각적 공간 구성 요소에서는 청색이 29%, 적색이 21%, 황색이 4%, 백색이 17%, 흑색이 29% 등으로 나타났다. 상징적·인식적 공간 요소에 대해서는 적색이 33%, 백색이 6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 색채의 분석 결과는 공간의 위치와 방향의 시각적 공간구성 요소와 계절, 시간, 오프의 공감각적 공간 구성 요소, 칠정, 사단의 상징적·인식적 공간 구성 요소 등에서 출현하는 전통 색채의 종류와 빈도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색이 많이 출현하고 있음으로써 세연정은 운선도가 맑고 깨끗하게 정치적 미련 없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자 작정하였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청색의 출현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흑색, 적색이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황색이 제일 낮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운선도가 세연정을 통해 벼슬 등의 지위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그 속에서 지혜를 쌓고, 춤과 시 짓기 등 놀이로 운선도 스스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생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정 되었다는 것과 일치되거나 적어도 연관되어 해석될 여지를 보였다. 이러한 세연정의 전통색채 출현 분석의 해석은 소재원에서도 백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작정자인 양산보의 생애적 배경, 즉 그의 스승인 조광조가 훈구파의 정치적 음해로 왕도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사된 것에 대한 충격으로 더러운 정치를 피해 맑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뜻을 살리려 소재원을 조영하여 지낸 것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전통색채의 출현 분석과 의미 해석의 방법론에 있어 신뢰성, 타당성, 일관성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별서정원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유형의 전통조경공간에서의 전통색채 분석과 해석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통 공간에서 전통색채가 출현 되고 있고 그것이 작정 의도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수단적 틀을 밝혀낸 것에 대해 큰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불구하고 세연정, 소재원 뿐 아니라 전국에 많은 별서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연구하지 못한 것은 일말의 연구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상의 두 별서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별서정원들이 규모, 작정자의 생애적 배경, 무엇보다도 별서와 주택과 구분이 되지 않는 등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전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 1) 그러나 고산을 미워하는 무리가 강화도에까지 와서도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고산은 투옥되었고, 1638년

52세에 경북 영덕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1년 만에 사면되어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과 해남 현산면의 수정동, 금쇄동, 문소동 등에 정자를 세우고 왕래소요(往來逍遙)하면서 산중신곡 등 작품 창작을 하였다.

- 주 2) 김미량은 다음과 같이 윤선도의 생애를 4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년 및 성장기로 출생하여 1차 유배(1587-1616, 1~30세)까지 기간. 둘째, 1차 유배 및 출사기로 경원(1616~1618, 30세~32세)과 경상도 기장(1618~1623, 32세~37세) 배소기 및 출사기(1624~1636, 38세~50세)로 병진소(丙辰疎)를 올려 경원 유배시 부터 영덕유배 전까지 기간. 셋째, 2차 유배 및 은둔기로 영덕 유배(1638~1639, 52세~53세)와 은일기(1639~1651, 53~65세)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시기. 넷째, 재출사기 및 유배기(1652~1660, 66세~81세)는 고산이 효종의 부름을 받고 재출사한 기간부터 예론에 패배하여 삼수로 3번째 귀양살이를 갈 때까지의 시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 주 3) 근거로 그들의 저서 「한국의 전통조경」(Hong and Lee, 2001)에서 세연정은 계담과 방지원도 사이에 위치한 정방형의 정자다. 「고산연보(孤山年譜)」에는 고산이 1637년 보길도에 처음 들어와 부용동을 발견했을 때, 건축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Jung, 1990:24). 그 후 이 정자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소실되었다가 근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원형에 대하여 충분히 고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복원된 세연정이 과연 과거의 모습을 얼마나 회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세연정의 건축구조와 형태는 지금까지 조사된 기록이나 발굴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그것의 정확한 상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 당시의 형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주 4) 세연정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동남과 서북, 동북과 서남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세연정 주변의 지형과 물의 흐름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남북이나 정동서를 가리키지 않고 변형된 남북, 동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주 5) 세연정(洗然亭)의 배치가 부지의 동서남북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지의 지형, 계류의 방향과 형태 등 자연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방향이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 6)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연정의 중심에서 기둥을 지나는 동심원을 1의 크기로 하였을 때, 세연정 지붕선이 연결되는 제1원주는 기준 비율의 1/2, 제1원주로부터 제4원주까지는 기준 비율이며, 제4원주로부터 제5원주까지는 기준 비율의 1.5배로 결정되었음을 도형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원주상에 인공구조물들의 중심이나 단들이 접하고 있어 그러한 법칙성을 토대로 공간구조의 형식이 결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REFERENCES

- Ahn, J. E.(2010). A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toward color preference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Dissertation for a Doctorate Degree, Major of Color, Department of Craft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 Choi, E. J. and Hong, G. P.(1994).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pace Organization of the Seyeon-dong Garden, Buyong-dong Bogil-do.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53(4): 135~148.
- Choi, M. A.(2001). A Study on the Thought in Gosan Yun Seon-do's SiJ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Han, H. J. and Cho, S. H.(2014).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Colors Symbol Found out in Soswaew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1): 63~73.
- Jung, D. O.(1987). A Study on Buyongdong Garden of Yun Seon-do, Gosan Research, pp.269~294.
- Jung, J. H.(1996).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 Published by Jokyeong pp.237~240.
- Kim, A. R.(2009). A study of jewelry design adopting sunbi's spirit(Focusing on the formative image of songs of five friends by Yun Sun-do), Majoring In Metal Design,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 Kim, H. M.(1990). Jung cheol, Park Inro, Yun Seondo's works, 朝鮮古典文學選集 Vol. 60. Published by Taehaksa.
- Kim, H.(1993).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Sosewon Garden through the Analysis of Poems and a Woodcut of Sosewon Garden(Sosewond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H. M.(2011). An Analysis of the aspect of Yijing in Byolseo Garden Soswaew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 Kim, M. J.(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orrowed Scenery through the Sosaew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 Kim, M. R.(2004). A study on Gosan Yun, Seon-do's 「Sanjungsingok」, Major in Korean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Kwon, S. G.(2008). Gosan's View of Nature in his Poems -Focused on the 'Eobusasisa' and Chinese poem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Kwon, S. Y.(2005). A Study on Soswaewon Based on 『Soswaewon sasil』,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ultural Propertie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M. H.(2005). A Study on Ha-seo, Kim In-hoo's 48 poem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5(-): 263~286.
- Lee, J. K.(1992). A Study on the retreating Villa (Byeol Soe) Garden in Choson Dynas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 J. S.(2010). Reading of Gosan Yun Sundo's garden, Published by Namudosi.
- Sang, W.(2002). A View of Nature and Time in Yoon Seon-Do's Literature,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2014년 10월 23일

심 사 일: 2014년 10월 28일(1차)

2014년 10월 29일(2차)

2014년 11월 03일(3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11월 03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